

‘자해 공갈’로 역대 보험사기 목포 조폭 39명 검거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낸 뒤 역대 보험금을 뜯어낸 목포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교통사고를 위장한 뒤 보험사 직원을 위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31)씨 등 목포 지역 조직폭력배 3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조직원 5명과 함께 지난 2003년 10월 21일 밤 11시30분께 목포시 상동 J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렌터카 2대에 나눠 타고 서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D화재로부터 55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 조폭은 자해공갈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속칭 ‘목포 서산파’ 등 3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위장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장기 입원을 하겠다”고 협박, 보험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4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전경태 前 구례군수 “테러 배후세력 있다” 병실서 자칭 기자회견

“그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후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본보 9월7일자 7면)인 전경태(59) 전 구례군수는 19일 병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칭, “이모(57)씨가 나를 피습한 것은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 군수는 “이씨를 10년이 넘게 만난 적이 있는데 무슨 원한이 쌓였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며칠 전 구례경찰서장이 병문안을 왔을 때도 이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의 이 같은 발언은 이씨의 범행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군수는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회피했지만, 측근들은 그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 군수 측은 경찰의 수사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이 이씨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범행동기를 넘겨 줬고 자신들의 주장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건을 담당한 구례경찰서 박종호 수사과장은 “범행 동기는 수많은 주변인물들을 조사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전 군수 측의 주장처럼) ‘배후세력’이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취업률 고작 40~50%대 안팎

‘이름값 못하는’ 전남대·조선대

2006 순수취업률 분석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지난 6일 전남대에서 열린 SK그룹 채용설명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그룹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의 취업률이 최근 3년 새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대의 경우 취업률이 40%대 불과하고 조선대도 50% 안팎에 그쳐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두 대학이 ‘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

19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광주대는 올 2월 졸업생 1천960명 가운데 대학원 진학자 및 군입대자 80명을 제외한 1천880명 중 1천324명이 취업해 67.6%의 순수취업률을 기록했다. 광주대의 순수취업률은 ▲2004년 60.7% ▲2005년 65.3% ▲2006년 67.6%로 3년째 상승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 서울에 비해 크게 낮아 광주대 3년째 증가 ‘눈길’

올 취업자의 분포는 일반기업이 1천271명(95.9%)이었고, 공무원이 53명(4.1%)이었다. 단과대별로는 경상복지대 66.4%, 인문사회대 67.9%, 공과대 68.4%, 예체능대 68.2% 등이었다. 광주교대는 올 2월 졸업생 577명 중 광주 231명, 전남 242명, 경기 41명 등 523명이 교직에 진출해 90.6%의 취업률을 보였다. 광주여대는 지난 4월 현재 대학원 진학자 19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426명 중 310명이 취업해 72.8%의 순수취업률을 기록했다. 광주여대는 취업 중심의 현장 교육을 강화해 ▲2004년 69% ▲2005년 72% ▲2006년 72.8%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동산대는 올 2월 졸업생 1천315명 중 대학원에 진학한 34명을 제외한 1천285명 가운데 848명이 직장을 잡아 67.8%의 순수취업률을 보였다. 동

■ 광주·전남 주요대학 최근 3년 취업률

대학	2004	2005	2006
광주대	60.7%	65.3%	67.6%
광주교대	95.9%	87.4%	90.6%
광주여대	69.0%	72.0%	72.8%
동산대	40.2%	67.9%	67.8%
전남대	40.4%	42.9%	-
조선대	44.7%	49.7%	52.4%
호남대	55.7%	58.1%	61.3%

(자료: 각 대학)

* 전남대는 통계자료 거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인용

▲순수취업률 = 졸업생 가운데 대학원 진학자 및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순수취업자 비율

산대의 순수취업률은 지난 2004년 40.2%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27.8%포인트나 올라갔다. 특히 올 취업자들은 경영·회계·사무직 22.9%, 보건복지·의료 18.6%, 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직 21.3%, 영업·마케팅·서비스 관련직 15.3%, 문화예술·디자인·기타 21.9% 등 사회 각계 각층에 골고루 분포했다. 조선대는 올 2월 졸업생 4천562명 중 2천293명이 직장을 잡아 52.4%의 순수취업률을 보였다. 조선대의 순수취업률은 지난 2004년 44.7%, 2005년 49.7% 등에 그쳤으나 올해 50%대를 넘어섰다.

전남대는 취업률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밝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2005년 취업률이 각각 40.4%와 42.9%로 전국 국립대 평균치인 46.8%와 54.8%에 크게 못 미쳤고, 전국 평균치인 58%와 65.9%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이 때문에 전남대의 취업률 공개 거부는 2006년 취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거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대는 올 2월 졸업생 1천627명 가운데 취업에 나선 1천559명 중 957명이 취업에 성공, 61.3%의 순수취업률을 보이며 3년째 취업률 상승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2006년도 순수 취업률은 고려대 82.1%, 성균관대 81%, 이화여대 78.2%, 건국대 77.2%, 한양대 75.7%, 연세대 74.1%, 숙명여대 71%, 숭실대 70.1% 등 대부분 70%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54%에 불과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신조어로 본 대졸 취업난

“이태백 가고 이구백 왔다”

<20대 태반이 백수>

<20대 90%가 백수>

인턴십·아르바이트·공모전·봉사활동 등 자격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졸업을 늦추는 ‘대학 동지족’이나 ‘올드보이’ 등은 대학 5학년생을 가리킨다. ‘나 홀로 서울족’은 취업을 위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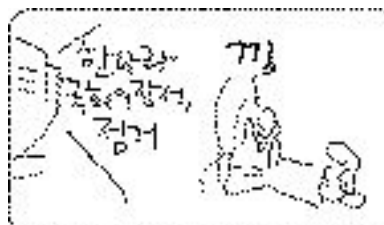
울로 올라와 혼자 자취하는 구직자. ‘KTX 풀’은 면접 전형을 위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지방대생들이 면접 일정과 연락처를 공유하며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빌 세대’는 취직하지 못하는 신

세, ‘스터디 토크’는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적응하지 못한 채 인생역전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30대를 지칭한다.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십장생’,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 하듯 어렵게 취직한 구직자를 지칭하는 ‘낙바생’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엔 20대 구직자 100%가 회사 원리라는 ‘이백률’, 구직자는 마음에 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구마선’ 등과 같은 희망 섞인 신조어가 눈길을 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원침



ROLEX
블랙스공식판매점
이제 광주에서만 정품 롤렉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T.062-360-1340
(광주신대세종점)

연세(가)동립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차 중 350여량 333세대
문의 (062)366-4220

주차장서 골프채 든 차량 7대 탈러

상나팔

○~지난 18일 새벽 광주시 서구 금호동 호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42)씨의 카렌스 차량 등 7대가 잇따라 탈러 경찰이 수사에 착수.

○~피해 차량은 트림크가 아닌 좌석 뒷편에 물품을 보관하는 카렌스·무쏘·산타페 등 모두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나 RV(레저용 차량)로, 차량 유리창이 깨진 뒤 모두 골프채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키 170cm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20대로 보이는 절도범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중고 골프채를 거래하는 전문용품점 측에도 수사 협조를 당부.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양입하
MAESTRO, DAKS, TOMMY HILF, TNGT, 20, lafuma,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당점
110000511-0249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클릭한방으로
www.hanboGAGU.com
100%의 본보기가 될 채팅상담
한보가구 062-225-9100

정원디자인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TOUCH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TOUCH 광주총판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